

지역의 활력, 지역 경제 선순환 : 농어촌 기본소득이 가져온 긍정적 변화

- 제87차 「The 100 현장경청프로젝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방문

기획예산처는 '26.5.20(수)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중인 충북 옥천군과 경북 영양군을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금번 현장방문은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앞서 정책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밀착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100곳 이상의 현장을 방문하는 기획예산처 예산실 「The 100 현장경청프로젝트」 제 87차 일정으로 기획되었다.

<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방문 개요 >

- 일시/장소 : '26.5.20일(수) 10:00~15:30 / ①충북 옥천군 청산면, ②경북 영양군 영양읍
- 참석 : (정부)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지방정부) 옥천군 부군수·청산면장, 영양군 농림관광국장·영양읍장
(민간) 청산농협조합장,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카페·의류매장 등 지역주민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초 시행되었는데, 도입 초반부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예를 들어 지역 내 가맹점 수가 올해 1월 말 대비 13.1% 증가하였으며, 특히 청년 창업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활성화되어 마을주민들이 직접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생필품을 판매하는 다기능마켓 등이 조성 중이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가 보다 많은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 5개 지역을 추가 반영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불러온 지역사회의 활력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본소득이 직접 사용되는 전통시장·의류매장·미용실 등 가맹점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효과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민간 전문가·지방정부·지역 주민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태곤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단기의 일시적 효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위해 금번 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소중한 의견들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함께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추경에서 5개 지역이 추가 반영되었는데, 공모에 44개 지방정부가 신청할 만큼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현재 시행 중인 지역에서 좋은 선례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언급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담당부처인 농식품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등과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금일 현장방문을 계기로 제기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27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고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농림해양예산과	책임자	과 장	정성원 (044-214-2750)
		담당자	사무관	박근형 (msguckorea@korea.kr)

